

2. 마지막 일들 - 12.

죽은 자의 부활(2)

(RESURRECTION OF THE DEAD)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18)

* * *

1.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3대 표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메시지가 있으나 소망은 적용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망도 그 자체로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롬 12:12; 참조, 5:2-4)고 명령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소망이 없으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롬 5:2-4 _____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모습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한다(엡 2:12).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 관해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죽음 이후에 관해 들려주신 소식’,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의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살전 4:13). 그리스도인이 이 소망을 모르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픔에 잠기고 즐거움을 갖지 못한다. 이 소망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인데, 소망이 막연하면 즐거움도 막연할 수 있는 것이다.

살전 4:13 _____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매우 긴박한 소망이다. ‘소망’이라고 하면 먼 훗날의 현실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언제든지 눈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살전 4:17).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헛된 소망을 가진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다가 죽으면 헛되게 죽은 것인가? 실제로 세상은 그 당시 그렇게 조롱했고, 지금도 그런 이유로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소망이 물거품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고 있다고 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지금 살아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다(살전 4:15).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이 소망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지식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룰 “예수 안에서 자는 자”의 의미이다.

Q.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 대할 때가 많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로 그들의 조롱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전 15:12-19 _____

* * *

2.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잔다.

성경은 왜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할까?(계 14:13)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인가? 잔다는 것이 무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하신 내용과 맞지 않다. 누가복음 16 장에 따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몸은 없지만, 그들의 영은 의식도 있고 땅의 정체성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땅에서 존재했던 모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영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으며, 두 곳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낙원과 음부에서 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들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래 전에 땅에서 썩었든지, 가루로 흩어졌든지, 불에 타서 재가 되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스겔 37 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몸으로 살아나는 환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몸이 일어나는 것이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번 째 포인트에서 더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몸으로 부활하기까지 믿는 자들은 죽어서 영으로 안식한다는 뜻이다. 성도는 죽어서 더 이상 몸을 입고 있었을 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도 음부에 있으면서 몸의 고통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들에게는 심 없는 고통이 지속된다. 몸은 없지만 몸의 고통이 영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 순간도 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죽음을 잔다고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눅 16:24-25 _____

Q. 우리가 죽기 전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히 4:10-13 _____

* * *

3. 부활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은 죽은 몸들을 모두 일으키신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에게 일어나라고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그 뒤를 따라 복창하며,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모든 죽은 몸을 깨우신다(살전 4:16). 낙원에서 대기하던 의인의 영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부활시켜 데리고 오시고,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에서” 몸으로 주를 맞는다(살전 4:17).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의 영들도 음부에서 다시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난다(계 20:13). 이것이 자살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땅에서 몸으로 생존하는 악인들은 죽음에서 일어난 악인들과 함께 주의 강림을 목격한다. 사망이 모든 몸들을 내뱉은 후에 음부와 사망이 불뭇에 던져져서 아무도 다시 죽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육신의 영생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은 불뭇이라는 현실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

계 20:13 _____

반면 의인의 생명의 부활은 악인의 몸의 부활과 현저히 다르다. 의인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한다(벧 3:20-21).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라고 한 말에 암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휴거의

현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들이 닫혀 있는 방안으로 들어오셨고, 또한 구름 위 하늘로 오르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공중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삶을 시작할 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할 지는 따로 다뤄야 할 주제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영원한 현실은 성도들이 모두 변화된 몸으로 함께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이다.

살전 4:17 _____

그러므로 물질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이고, 그의 현실은 슬픔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소망을 확실히 알고, 그 소망 중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미래를 복으로 누릴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의 소망과 바꿀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미래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겁게 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Q.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해줄 수 있는가?

고전 15:35-58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땅에서 몸으로 사는 일'에만 연연한다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현실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소망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